

<서평>

## 한국의 동남아 연구자들이 현지에서 온몸으로 써낸 지역연구의 길

Ways of Area Studies on Southeast Asia written  
by Korean Scholars with Whole Heart

이 한 우\*

전제성 편. 2014. 『맨발의 학자들: 동남아 전문가 6인의 도전과 열정의 현지조사』. 서울: 눌민.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I. 현지로 가라

몇 해 전만 해도 동남아 지역연구를 전공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왜 그걸로 정했냐고 묻기 일쑤였다. 동남아 지역연구를 하려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나 보다. 나는 미국 연구나 중국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도 같은 질문을 했을까 의문이었다. 하나 뭔가 특별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동남아는 이제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동남아를 행선지로 택해 여행을 떠나며, 수많은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 이제 동남아는 경제적으로 한국의 제2 교역대상이 되었다. 한국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동남아에 대한 투자를 늘려오는 가운데, 특히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한국과 동남아 간에는 정치경제적 교류가 부쩍 늘었다. 최근 급증한 교류 속에 한국인들의 동남아에 대한 관심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동남아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한층 더 좁혀졌다.

여기 소개하는 『맨발의 학자들』은 동남아 지역연구를 전공하는 한국인 학자 여섯 명의 현지조사 경험담을 기술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그들의 학문적 여정을 드러낸 생애사이기도 하다.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책에 실린 사진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을 벗어나 장년으로 향해 가는 저자들의 풍모를 볼 수 있어 이를 실감케 한다. 말하자면, 이 책은 저자들이 현지조사과정을 온몸으로 써내려간 지역연구 방법론이며 지역전문가로 태어나는 모험과 성장의 드라마다. 그들은 충분한 준비 없이 현지에 뛰어들었다라도 현지인들과 섞여 살며 진정한 지역전문가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삶 자체로 보여준다. 그들은 지역연구자로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학문적 열정을 어떻게 갖추고 현지조사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내며 지역연구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무릇 지역연구는 다른 이의 삶과 그 사회 또는 지역, 국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전경수 1999). 그러나, 과거에 지역연구가 제국주의적 이해를 학술적으로 포장하거나, 냉전체제 하에서 적대 진영에 승리하기 위한 정보와 지식의 축적에 이용되어 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김정일 편 1998). 과거 유럽,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역연구가 이러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연구는 정치적, 경제적 ‘국익’에 봉사하기 위한 타국 연구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연구 자체가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저자들은 국가의 편에 서지 않고 자본의 편에 서지 않고 현지인의 편에 서 ‘공정’ 지역연구를 추구하였다. 저자들은, 이 책의 편저자에 따르면 한국의 제3세대, 박승우(2009) 선생의 구분에 따르자면 한국의 제2세대 중 제2, 3 코호트에 속하는 동남아 연구자들이다. 이들의 특징은 본인이 연구하는 국가 및 지역의 현지어를 구사하고 현지어 문헌을 해독하며 장기간 현지에 머물며 조사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전문가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한국에서 동남아 지역연구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린 연구자들이다.

현지조사는 지역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인류학자뿐만 아니라 정치학자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이 저자들도 지역연구자들에게 연구방법을 고민하기보다 일단 현지에 들어가 생활해보라고 강권한다. 동남아 현지에 익숙하지 않았던 황인원 선생은 “현지 생활” 이후 “현지조사”를 했다고 한다. 저자들은 현지에서 정치 엘리트부터 촌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하였다. 처음 그들은 “맨땅에 헤딩”하면서 현지인들에게 접근하였고, 마침내 현지인들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친구가 되었다. 그들의 ‘맨발’은 동남아에서 더위 때문에 양말을 벗어 던진 그 맨발이지만 “낮은 데로 임하기부

터 시작한”(p.402) 연구 자세를 뜻하기도 한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연구가 다른 지역 연구와 유사한 연구과정을 거쳐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한편 동남아 연구의 독특함과 재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나의 소감은 한 마디로 이렇다. “감동적이다.”

이는 단지 저자들의 학문적 열정에 공감해서만이 아니라 그들 삶의 역정에 경외감을 갖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분열적 환경”을 이겨내면서 학문적 성과를 이뤄냈다. 나 또한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자료 수집차 1994~95년 사이 일 년 넘게 하노이에 머물렀기에, 처음 접하는 현지에서 맞닥뜨린 예상치 못한 일들로 당황하고 난감해했을 상황에 충분히 공감한다. 거기에는 기후, 음식, 문화적 차이만이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 하에 만연한 관료주의로 인한 난관들도 있었다. 저자들은 각자의 ‘현지’에서 맞닥뜨렸을 수많은 난관들을 기지와 열정으로 이겨내고 현지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커다란 학문적 성취를 이뤄냈다. 이십년 가까이 그들의 학문적 여정을 보아온 나로서는, 이 소감이 편향적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 II. 현지조사 따라가기

### 1. 준비과정

저자들의 현지조사는 어떤 연구방법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그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일까? 그들의 현지조사를 따라가 보자.

그들의 이야기는 대학원과정을 위한 학교 정하기부터 시작된다. 특히 현지 경험을 중시하는 호주에서 공부한 김형준, 황인원 선생이 이에 대해 생생하게 서술했다. 이론 중심이었던 한국에서의 훈련과

달리 현지사정에 밝고 그에 기반한 사회 현상의 의미를 찾으려는 호주 대학원의 분위기는 현지조사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워주었다고 전한다. 황 선생은 “본인의 전공 지역 언어 학습 경험 및 현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 이런 내가 [말레이시아를 전공한다니] 어색하고 민망하기까지 했다”고 한다(pp.174-175). 동남아에 대한 초보적 지식만 있던 그들은 대학원과정에서 이미 동남아에 익숙해 있던 동료들 앞에서 “그저 어색하게 웃는 일만이 능사였던”(p.175) 경험, 조사 초기 현지에서 “말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니 웃음 짓는 일이 일상이 되어 눈 밑에 주름이 깊어 파졌던”(p.50) 경험을 말한다.

저자들이 대학원 코스워크를 마치고 현지에 가기까지 겪어야 했던 일들, 즉 연구주제 정하기, 연구비 찾기, 조사지 정하기, 연구 비자 받기, 또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과 친숙해지기, 정보 수집, 그리고 문헌자료 구하기 등은 당시 그들 앞에 놓인 넘어야 할 큰 산들이었다. 연구주제를 보자면, 저자들은 당파성이라고까지 하지 않더라도 농민, 노동자, 이주민,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정치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과 그 사회를 이해하려 했다. 그들이 자연스레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희구하는 자세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의 사회적 실천도 잘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이들은 학문이 캠퍼스의 담장을 넘어 사회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학자는 글로 싸우는 거다”(p.213) 라고 한 조모(Jomo) 교수의 직언에 학자적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지조사를 준비하며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연구비였을 것이다. 채수홍 선생은 학계의 흐름에 맞는 주제로 연구계획서를 써내 연구비를 확보하는 데 유리했다고 한다(p.249). 호주, 싱가포르, 미국처럼 해외지역연구를 지원하는 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

국가의 대학원과정에 있던 저자들은 연구비 확보와 현지조사 준비에 비교적 수월했을 것이다. 이런 기반이 덜 갖춰진 국내 대학원과정에 있던 저자들은 동남아 전공 선배 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우리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 도서관의 장서를 보고 느꼈던 부러움과 기초 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국 내 지역연구의 열악한 기반에 부끄러움이 교차했던 기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지 않은가! 나도 국내에서 구하지 못한 자료를 호주에 있던 황인원 선생과 미국에 있던 김지영 선생에게 부탁해 받았기에 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전제성 선생은 이런 한국 내 열악했던 지역연구 기반의 현실과 고민을 생생하게 기록하였다(pp.332-334, 344-345). 이제는 국내 동남아 연구자층이 더 두터워져 학문후속세대들이 선배 학자들의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비, 조사지 정하기, 연구 비자 등에 대해 조언을 듣고 협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몇 해 전부터 한국동남아학회가 동남아 지역연구 전공 대학원생을 위한 현지조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동남아연구 그룹이 대학원생의 해외현지조사비를 지원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지역연구 그룹이지 않을까 싶다(전제성·이재현 2008).

## 2. 현지 사회로 들어가기

저자들의 현지조사는 동남아 어느 지역에 도착했을 때 더위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그들도 동남아 어느 공항에 처음 내려 ‘탁’ 막히는 숨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동남아 여러 지역에서 평상시 기온이 35도는 되니 홍석준 선생이 머물던 말레이시아 어느 마을의 2층 창고를 개조한 방에서는 40도를 족히 넘었으리라. 홍 선생은 50도 이상이었던가며 ‘죽는 소리’를 했지만 말이다. 저자들의 열정이 더위를 눌러서일까 이제는 익숙해져 이

짧은 이야깃거리가 아닌 일이 되었는지 그들은 더위를 견디는 것에 관해 큰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았다. 한편, 황인원 선생은 이슬람 사원에서 새벽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잔(Azan) 소리가 여행 책자에는 “새벽을 깨우는 은은하고 장엄한 소리”라고 소개되어 있었지만 현지 조사 초기에는 잠을 방해하는 괴성이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p.182). 이도 곧 익숙해졌다지만 말이다.

저자들은 조사지를 선정할 때, 연구목적에 따라 이슬람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마을을 택하거나(홍석준), 노동운동 연구를 위해 산업화된 도시(전제성)나 외국인 투자 기업이 밀집한 지역(채수홍)을 선택하였고, 중앙 정치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지역(황인원), 국경을 넘어 이주한 지역(이상국)을 택하였지만, 인도네시아의 전통 믿음 체계와 이슬람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보통 마을”(김형준)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저자들은 온갖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조사지에 정착하였다. 저자들 대부분은 조사지에서 권력자나 부유한 집보다는 불편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의 집에 거주하여 현지 사회에 스며들어 가고자 노력하였다. 어느 저자는 지역 유지의 집에 거주하며 집주인의 사회자본을 활용해 행정기관과 유연한 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저자들이 현지에서 주민들과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통과 의례는 홍석준 선생이 말레이시아 끝란탄 빠야올라 마을에서 ‘부두’(budu: 멸치액젓)를 먹은 것처럼 현지 습속에 익숙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pp.116-126). 끝란탄의 ‘부두’가 베트남의 ‘맘똥’(mam tom)이라는 새우젓과 비슷한 것일 듯하다. ‘맘똥’은 한국의 새우젓보다 더 삭혀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같다. 동남아에 생선이 풍부해 이를 발효시킨 간장이 널리 퍼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부두’나 ‘맘똥’처럼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같이 외부인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폭 삭힌 홍어를 권할 때 그들이 먹기 어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두’를 먹고 홍 선생은 이슬

람 마을의 일원이라는 ‘거주증’을 획득한 셈이 되었고, 이후 무슬림 여성들에 대한 면담도 원활히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현지에서 통과하려면 채수홍 선생이 박쥐 피를 섞은 샬러드나 부화 직전의 오리 알을 먹어야 했던 것으로도 실행되었다(p.294).

이러한 현지 주민 및 조사대상자와의 정서적 유대는 “아살람 알라 이쿰”(신의 가호가 당신에게) 하며 정겹게 인사하고(전제성, p.369), “그들의 이야기를 거의 무조건 들어주거나”(김형준, p.53), 농사일을 함께 하거나(홍석준, p.147), 공장일을 배워보기도 하고 점심을 함께 하고 술자리를 자주 가져 비밀을 공유하고(채수홍, pp.268-272), 노동자 편을 들고 인권단체 활동에 동참하며(전제성, pp.374-379) 쌓아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어느 저자는 소작농이 되어 농사를 지어 시장에서 팔아보고 동네 사람들 편에서 함께 외부인에게 돌을 던지고 시신을 목욕시키거나 무덤에서 밤을 지새워보기도 하였고(김형준, pp.85-86), 노름판을 기웃거리거나 축구경기 내기에 참여하고 가라오케에서 놀림감이 되기도 했으며(채수홍, pp.293-294), 지역민과 축구를 함께 하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이상국, pp.443-447).

### 3. 연구방법

#### - 문헌 수집

저자들은 문헌 수집, 참여관찰, 대화, 심층 인터뷰, 정보제공자 활용 등 현지조사 방법론에서 언급되는 일반적 연구방법에 따라 조사를 추진했지만(윤택림 2013), 반드시 그 방법에 따르기만 하지 않고 현지 실정에 맞춰 유연하게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저자들은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싱가포르대학 도서관, 말라야대학 도서관, 정부 산하 현지 연구기관, 정당, 지방정부 자료실,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을 통해 문헌을 수집하였다. 문헌 수집은 정치학자들에게 더욱 중요했지만, 인류학자인 홍석준 선생도 현지에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황인원 선생은 말라야대학 도서관에서 스크랩해 둔 신문 기사 자료를 복사하는 데 수개월동안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더불어 그는 말레이시아 민주행동당 자료실에서 “죽치고 있기”를 반복해 당직자들과 유대를 형성하여 보도자료와 정세분석 자료 묶음을 통째로 복사해올 수 있었고, 이로써 민주행동당 총재가 황 선생을 “자료를 다 복사해간 한국인”으로 기억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NGO 사무실에서도 죽치고 전락으로 활동가들과 유대를 쌓고 자료를 얻었다고 했다(pp.187-196). 전제성 선생은 지역 시민단체를 통하여 지방신문에 게재된 노동 관련 보도 스크랩, 노동자 수기, 파업 통계를 확보할 수 있었다(p.370).

- 참여관찰과 인터뷰

저자들이 현지조사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한 방법은 참여관찰과 인터뷰였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농촌을 연구한 김형준, 홍석준 선생은 마을 공동체 모임, 종교 모임,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가정의례에 참석하여 사람들의 생활을 관찰하였다. 그들은 주민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농사일을 돕기도 했다. 김 선생은 직접 논을 경작하여 쌀을 내다팔아 보기도 했으나, 홍 선생은 그를 한국에서 온 머슴썸으로 여겨 부러먹으려는 주민들과 사이가 벌어져 “일을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왜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하느냐?”는 주민들의 불만을 들어야 했다. 한국에서 대도시 학생이었던 홍 선생에게 “깜뽕 보이”(시골 청년)로서의 농사일은 손에 익히기 어려운 과업이었나 보다.

채수홍, 전제성 선생은 노동운동을 연구하면서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력하였다. 채 선생은 노동자들과 친밀해지기 위해 공장일을 배워보려고 노력하였고, 공장 한 구석에 연구공간을 만

들어 관리자들과 환담하였으며, 베트남인 노동자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그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하고 카페나 노래방에 가며 당구를 치거나 술자리에 참석해 그들의 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전 선생은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NGO 활동가들의 “중간계급의 노동운동”을 넘어서고자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을 찾아가 조합간부들과의 관계를 친밀히 하는 가운데 “노동계급의 노동운동”을 체험하였고 이를 통해 NGO 활동가들로부터의 신뢰도 얻을 수 있었다.

황인원 선생은 말레이시아 정치를 연구하였기에 주로 정치인들과 인터뷰하였다. 그는 현지조사를 시작할 때 지도교수로부터 두 명을 소개받았는데, 그 일간지 기자와 정치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여러 정치인들과의 면담을 확대해갈 수 있었고, 마침내 마하티르에 대항했던 최고위 정치인들을 만나 면담할 수 있었다(pp.195-201). 그는 정치인들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에 비해 정부 여당 측 인사들과의 면담을 성사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기에 인터뷰 대상자의 균형을 맞추는 일과 연구목표에 적합한 인터뷰 대상을 찾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조언한다(p.228). 더불어 저자들은 공식 인터뷰뿐만 아니라 NGO 사무실에서 “죽치고 앉아 이야기하는” ‘농크롱’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전제성, pp.356, 368-369). 황 선생도 NGO나 정당 사무실에서 “무작정 찾아가서 몇 시간이고 죽치고 있기”를 반복해 정서적 유대를 만들고 여러 활동가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고 한다(pp.193-194).

정치학자들은 현지에서 객관적 관찰자여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로써 내부 정보를 얻는 부가적 이득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황인원 선생은 당초 인터뷰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채용하였으나, 1998년 9월 마하티르에 의해 안와르 부총리가 해임되고 구금된 후 야당 인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

극 개선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여 “정치 참여와 관찰”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pp.206-208). 전제성 선생도 인도네시아 메이데이 행사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에 관해 강연하여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사의 일익을 담당하였다(pp.392-394) 전 선생은 사회운동을 주제로 현지 조사를 할 경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pp.403-404).

저자들은 조사를 위해 현지로 떠날 때 관련문헌, 현지 언어, 현지 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을 고백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현지조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그 성공의 밑바탕에 동남아 연구에 대한 열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책을 읽으며 아쉬운 점은 이 책에서 저자들이 친숙한 자기 ‘현지’에 대해 적다보니 이 책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이 수없이 등장하는 생소한 지명, 인명에 혼란스러워할 것 같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동남아를 많이 접해보지 못한 일반인들을 여기에 흠뻑 빠져들게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느낌이다. 좀 더 친절하게 각주도 달고 지도나 그림을 더 넣었으면 좋았겠다.

### Ⅲ. 마무리하며

이제 저자들은 해외 현지에 각자 그들의 마을을 갖게 되었다. 몇 해 전 나도 그들의 마을을 기웃거려볼 기회가 있었다. 이제 그들의 현지조사 글을 읽으니, 그 때 저자들이 ‘자기 마을’을 즐거이 안내해 주고 흥미를 갖게 부추겼을 때 들떴던 나의 마음이 다시 떠오른다. 나는 전제성 선생의 안내로 자카르타에서 ‘클럽링’(clubing)을 하며 젊은이들 문화를 엿보았고 NGO 사람들을 만나 담화하고 그들이 주

최하는 학술모임에도 가 보았다. 또한 우리가 머문 호텔에서 람뽕(Lampung) 커피를 처음 마셔보고 인도네시아 커피의 높은 수준을 느끼기 시작했고 엑셀소(Excelsa) 커피숍에서 토라자(Toraja) 커피를 접하고는 바로 그 매니어가 되고 말았다. 또 나는 김형준 선생의 안내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따(Yogyakarta)에 있는 그의 마을을 방문해 국회의원 선거를 참관할 수 있었다. 마을 이장을 만나고 김 선생의 친구인 닭장사 수로노를 만나 그 집에까지 가봤으니, 인도네시아 지역연구자의 말석이라도 붙여주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한편, 여러 해 전 내가 대학생 봉사단을 이끌고 묵었던 호찌민시 외곽 투득(Thu Duc)이 채수홍 선생이 현지조사를 수행한 공장이 있던 곳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고, 미리 알았다면 그 곳을 방문해볼 수도 있었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또, 태국의 쑤코타이에서 치앙마이 가는 길에 매솿(Mae Sot) 방향 이정표를 보고 버스에서 내려 이상국 선생의 마을을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

여러 저자들이 지적했듯이 현지조사는 단지 학위논문엔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현지인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다. 젊은 시절 동남아 현지인들과 삶을 함께 나눴던 저자들에게 이제 현지 사람들의 삶은 그들 삶의 한 부분으로 됐을 것이다. 나에게도 현지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삶은 이미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올해는 내가 현지조사차 베트남 하노이에 머문 후 20년 되는 해여서 감회가 새롭다.

써 놓고 보니 글이 서평보다는 감상문에 가깝게 되었다. 저자들의 학문적 역정에 이정보다는 감성적으로 더 공감했던 결과다. 그들이 “소수에 불과했지만 적도 위에서 뜨겁게 만나고 서로 지지하고 많은 것을 나눴던 ..... 소외된 지역을 전공하는 외로움을 달래고 미지를 향한 열정과 도전의식으로 충만한 동지들”이기에 그렇다(p.407).

### 〈참고문헌〉

- 김경일 편. 1998.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 박승우. 2009.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사회과학 분야 제2세대 동남아 지역연구자에 대한 심층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19(1), 215-275.
- 윤택립. 2013.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 개정판. 아르케.
- 전경수. 1999. 『지역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제성 · 이재현. 2008. “한국의 동남아학 교육과정과 지역연구자 육성 모델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8(2), 255-297.

